|  |  |
| --- | --- |
| EMB0000107c2531 | **멋쟁이사자처럼 4기** |
| **DGUlion 지원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 명 | | 박상준 | | 생년월일 | | 910203 |  | |
| 나 이 | | 26 | | 성 별 | | 남 |
| 학 과 | | 컴퓨터공학과 | | 학년 / 학번  (2016년도 기준) | | 4/2010112383 |
| 연락처 | 주 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0길 72 한빛삼성아파트 101동 1308호 | | | | | | |
| 이메일 | sangjunpark0203@gmail.com | | | | 휴 대 폰 | 010-9271-4555 | |
| 동아리 혹은 각종 대외활동 ※ 없으시면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 | | | | | | |
| 단체명 | | 활동기간 | | | 활동내용 | | | 현재 활동여부 |
| DNA | | 2011 | ~ | 현재 | 리눅스 동아리 | | | Y |
| 한글학교하람 | | 2014.8 | ~ | 2015.7 | 외국인 한글 교육 봉사 | | | N |
| 오픈컬리지 | | 2015.12 | ~ | 2016.2 | 코드스쿨 | | | N |
| 자신에게 선택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세요. | | | | | | | | |
| 개발 경험 | | Y | | | | | | |
| 배워 본  프로그래밍 언어 | | C,C#,JAVA,RUBY,PYTHON | | | | 다룰 수 있는  디자인 툴 | - | |

|  |
| --- |
| 안녕하세요. 길게 글을 쓰는 건 제 특기인데, 예시로 보여주신 40장만큼은 아니지만, 채워볼 생각으로 자기 소개서를 써보겠습니다. 위에 제 신상은 적혀있으니 추가적인 내용만 적게습니다. 평소와 같다면, 어느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조직을 공부하고 그에 맞춰서 자소서를 쓰지만, 이번에는 한번 도전적으로 솔직한 감정을 써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다음학기에 9학기로 졸업을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1학년을 제대로 보내지 못해서, 한 학기를 버렸죠. 하지만,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경험을 쌓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동아리에 들어가서 스터디를 해보기도 하고, 사람들의 멘토가 되어 누군가에게 조언을 주는 사람이 되어보기도 하고, 경매 도우미로 JTBC에 출연도 해보고, 많은 외국인들과 대화를 통하여 여러 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양한’, ‘창의적인’ 활동에 치중을 하다보니, 막상 제 전공인 프로그래밍에 제대로 빠져들어 공부를 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후회가 되는 일이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저는 취직을 하고 싶습니다. 인턴을 하고 싶고, 좋은 회사에서 빡세게라도 좋으니 경력을 쌓으면서 스스로를 높이면서 살고 싶습니다. 학생의 신분을 좀 벗어나고 직장인으로 미래를 계획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조금 급한 마음이 사실 큽니다. 하지만 이번 여름에 인턴이나 정직원으로 지원을 해서 다음 학기부터는 취업계를 내고 다니려면, 꽤나 탄탄한 기본기와 개발 경험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취직한 친구들은 “너는 영어도 일본어도 잘하고, 학점 3.0이상이고 코딩도 평균은 하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이 그저 놀림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코딩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괜찮은 회사에 가거나 다른 사람들처럼 학점 관리를 열심히하고 자소서와 면접을 거쳐서 대기업에 취직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높지 않은 학점으로 대기업에 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알려지고 미래가 조금 밝은 회사에서 시작하여 제 커리어를 높여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할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 있던 능력있는 친구들은 모두 좋은 곳에 이미 취업을 했고, 거의 혼자 남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몇년간 학술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지만, 실제로 제가 원하는 수준의 스터디는 진행되지 않고, 그 만큼의 의지와 의욕을 갖고 있는 후배도 없습니다. 저는 이미 놀 만큼 놀았다고 생각하고, 대학생활에서 겪을 만한 것들은 대부분 겪어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길에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그래픽스, 디자인 패턴, 졸업 프로젝트를 수강합니다. 대부분 팀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팀 프로젝트를 학교와 교외에서 해 보았고, 팀장도 몇 번 맡아보았습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력있는 한 두명에게 의지하면 나중에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는 뼈저린 경험도 했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는 실력자가 되어 그런 뒤통수 치는 상황은 면하면서 살자는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에도 iOS 프로젝트와 오픈 컬리지 Rails 프로젝트를 거쳐서 서버단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세 달동안 졸업 프로젝트로 만들고 싶은 것에 대한 설계도 어느정도 마무리를 지어서 팀원을 모집하여 이제 뼈와 살을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는 초짜이기 때문에 구글링 실력의 한계를 느낄 때. 한 마디씩 던져주는, 함께 의지하고 돕고 도와줄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멋쟁이 사자처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멋쟁이 사자처럼’은 Ruby on Rails 페이스북 커뮤니티에서 한 분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홀로 공부를 하다가 ‘오픈 컬리지’ 활동에서 두 분의 멘토를 통하여 더 많이 알게되었지만, Ruby 언어는 함께 공부할 사람도 찾기 힘들었고, 특히나 한국에서 선호하는 언어가 아니라서 자료를 찾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원하는 것을 찾아서 하나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한국이 아니라도 저를 필요로 하는 회사에서 가능성을 인정 받으면서 즐겁게 일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곳에 온 목적은 이래저래 길게 풀어쓰고 있지만, 하나입니다. “취업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2016년이 마지막 학기가 됩니다. 2016년 1학기는 정상적으로 17학점을 듣지만, 2학기는 졸업 프로젝트 하나만 들으면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 상황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학기에는 포트폴리오에 올릴 만한 서비스(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흥미를 갖고 이용할 만한)를 몇 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제 바람대로 만들어 진다면, 졸업 프로젝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나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어디서든 “창의적이다. 특이하다.” 라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물론 이 단어의 뜻이 때때로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성을 하고 스스로를 고쳐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몰랐던 것을 경험하면, 그 것을 토대로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싶어하는 의욕이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면서, 때로는 어떤 검색을 하다가 새로운 분야의 무언가를 처음 보면, 신기함에 그 것을 분석하고 응용해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기획을 홀로 해봅니다. 그래서 많이 보고 경험할 수도록 제 아이디어는 끝을 모르고 뻗어 나아갑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그럼 그 동안 생각한 아이디어를 들어봅시다.” 라고 하면, 또 머뭇머뭇하겠죠. 하지만 실제로 무언가를 추친하면, 추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빨리빨리 탄탄하게 하고 가려는 성격때문에, 뒤쳐지거나 의욕이 없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배제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의욕이 없는 사람들과 작업을 하는 일은 사실 힘듭니다. 의욕이 없는 사람들까지 제가 우쭈쭈해가면서, 함께 할 자신은 솔직히 없습니다. 이 곳은 회사가 아니고, 생사가 달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못걸리면 열심히 하는 사람만 피해보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죠.  사실 ‘멋쟁이 사자처럼’ 이라는 커뮤니티는 어떤 곳인지 잘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했을 때는 이 페이지가 닫혀있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스터디가 진행되는 지도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픈 컬리지와 페이스북 루비&레일즈 커뮤니티와 구글, 책등을 통하여 공부를 했습니다. 단순히 친목 동아리가 아니라 특수 목적을 가진 동아리를 저는 한 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한글학교 하람이라는 동아리입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데,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만 모여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흩어지죠. 개인적으로 만남이나 술자리도 많았지만, 일 하나는 책임감있게 하는 동아리였습니다. 저는 4학년이고 마지막 학기로 생각하고 있어서 만약에 ‘멋쟁이 사자처럼’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되더라도 잦은 술자리나 앰티같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자신은 없습니다. 여유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스터디나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런칭하려는 프로젝트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활에서 단 한번도 흔히 “날로 버스 탄다.”, “먹튀한다.” 라는 말을 들을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 주도를 해서 진행한 프로젝트는 있지만, 대부분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의 역할 이상은 맡아서 참여했습니다. 최소 나 하나때문에 전체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 사고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멋쟁이 사자처럼에 들어가서 만약 멘토들이나 다른 회원들과 함께 만들어 보고 싶은 서비스가 있다면, 특정 학과나 전공 또는 분야에서 공부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시작 기반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컴퓨터 공학과를 예로 들면, 생활 코딩이나 여러 강의가 이미 무료로 공개가 되어있고, 우리들은 이미 구글링을 통하여 해당 기술의 튜토리얼 페이지나 블로그 포스팅에서 정보를 얻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갑자기 문뜩 떠올라서 구글링을 시작하여 생각하는대로 바로 검색하고 바로 사용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조언이나 누군가가 하던 것을 따라하면서 시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4학년 졸업반인데도, StackOverflow의 존재 조차 모르고 졸업하는 사람들도 터무니없이 많은 것이 현실이죠.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상식이나 지식을 제공하고,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주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일에 어떤 언어가 적합한지, 해당 언어는 어디에 사용되는 니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돈은 벌지 못해도 상관없고, 서버 유지비가 제 사비로 나가서 적자를 매달 기록해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이 서비스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인지도 있는 서비스가 된다면, 지금은 그걸로 만족합니다. 최소 대한민국에서 컴퓨터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나 개발자들의 빠른 판단과 시작을 돕기 위해서.  참고로 저는 얼마되지 않았지만, 네이버에서 개발자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블로거이며, 주소는 <http://blog.naver.com/potter777777> 입니다.  아래는 제가 개인적으로 Ruby on Rails 로 만든 것들 중 일부입니다.  재미로 만든 게시판 주소 : <https://junee01-forum.herokuapp.com>  Rails 로 만든 포트폴리오 페이지 : <https://portfolio-junee01.herokuapp.com> |
| 멋쟁이 사자처럼 지원 시 필수 확인사항  1. 지원자는 아래의 지원일정 안내를 확인하고 일정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2. 멋쟁이 사자처럼 지원 마감 시간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3. 면접 대상자는 면접에 반드시 참여하셔야 합니다.  4. 합격자는 앞으로의 멋쟁이 사자처럼 활동에 성실히 임하셔야 합니다.  5. 면접 합격자께서는 3/18(금) 동국대학교 합격자 사전 모임에 반드시 참여하셔야 합니다.  6. 메일제목은 “동국대학교\_멋쟁이사자처럼\_4기\_홍길동\_지원자” 로 통일해 주셔야 합니다.  7. 지원서는 “동국대학교\_멋쟁이사자처럼\_4기\_홍길동\_지원서”  자유 형식의 첨부파일은 “동국대학교\_멋쟁이사자처럼\_4기\_홍길동\_첨부파일”로 통일해 주셔야 합니다.  8. 면접 대상자에 한해서만 면접 시간에 대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서류 합격자 발표 시, 자세한 사항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  |  | | --- | --- | | 멋쟁이 사자처럼 지원일정 안내 | | | · 3/2(수) ~ 3/11(금) | 서류 접수기간 | | · 3/13(일) |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 | · 3/14(월) ~ 3/15(화) | 면접 | | · 3/17(목) | 최종 합격자 발표 | | · 3/18(금) | (동국대학교) 합격자 사전 모임 | | · 3/19(토) | (전체) 멋쟁이 사자처럼 오프닝 데이 & 엠티 |   지원자 박상준 은(는) 상기 유의사항과 일정에 동의합니다. |